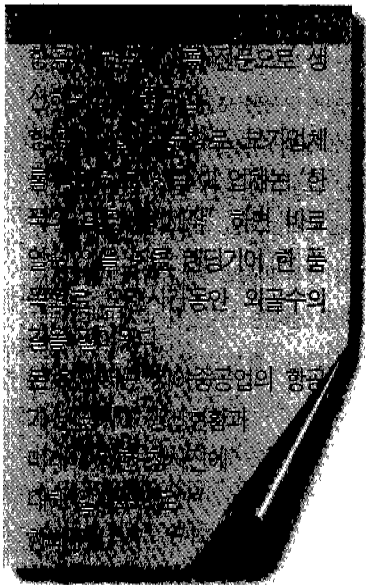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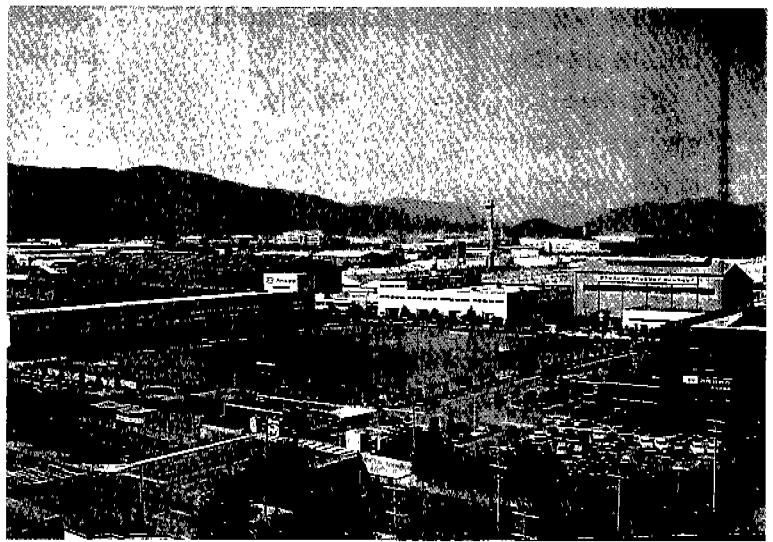
우리의 랜딩기어를 세계로... 기아중공업을 찾아서



20년역사...

대표적인 한국의 방산업체

1976년 기아그룹의 일원으로 창업하여 우리나라 정밀 종합기계공업의 선두주자역할에 최선을 다해 온 기아중공업.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 핵심부품인 변속기, 차축, 조향장치, 등속조인트에서부터 각종 공작기계(CNC 선반 및 MACHINING CENTER), 로봇트, 프레스와 함께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참여한 각종 환경설비, 중대형 운반기계(울진 원자력 발전소 터빈용 크레인),



하역설비, 제철제강설비(포철의 연속주조설비), 중장비사업과 미래지향적인 항공기산업에 이르기까지 품질제일주의에 입각한 고정밀의 첨단제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20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발전을 거듭해온 기아중공업은 이제 국내의 명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계공업 메이커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중공업은 세계 초일류 회사로 성장하기위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2천 5백여명의 엔지니어들이 기술개발과 완벽한 제품생산에 땀과 혼을 쏟고 있다.

특히 기아중공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은 모두 국내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위산업부문은 회사 창립시부터 각종 화포류(박격포, 곡사포, 무반동총 등)의 생산을 시작으로 지금은 자체설계 및 개발로 국가 방위력 증강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매출액은 '96년 약 5천1백억원, 올해는 6천7백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항공부문에서 착륙장치생산을 주도

기아중공업은 국내유일의 항공기 착륙장치 전문 생산업체로 지정

받아 지난 '90년 영국의 웨스트랜드(Westland)사에 링스헬기의 착륙장치 생산공급을 시작으로 '91년 F-5, '94년 UH-60P 헬기, KTX-1 사업의 착륙장치 설계생산 성공으로 이어졌고 '96년 7월 초 정밀 가공기술중에서도 가장 고난도 기술로 알려진 KF-16 전투기의 착륙장치를 완전 국산화 개발하여 해외 우수항공업체들로부터 군용·민용 부품을 수주받아 생산중에 있다.

이로써, 동 사는 국내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분야에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유일의 항공기 착륙장치 전문 생산메이커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으며 기존 종합기계기술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항공기 착륙장치부문... 국내 독보적 존재

기아중공업이 추진해온 항공기 사업은 항공기 착륙장치 개발이라는 외골수의 길을 걸어왔다. 한 품목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기에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음은 기아중공업이 생산한 품목이다.

■ 링스(LYNX)헬기 착륙장치

정부의 읍셋방식으로 생산하게

된 링스헬기의 착륙장치는 '88년 링스헬기의 원제작사인 영국의 웨스트랜드사의 기술자료제공과 기술지원으로 가공, 특수공정, 조립 및 시험평가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육군용과 해군용의 링스헬기 착륙장치를 개발하였고 '90년부터 납품을 시작하여 1,2차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웨스트랜드사는 '94년 기아중공업의 납품분에 대한 품질만족으로 품질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기아중공업은 지난 서울에 어쇼'96에서 링스헬기의 착륙장치 80대분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특히 헬기 변속기(T/M) 부품을 수주받아 정부로부터 전문제조업체로 지정받아 현재 생산준비중에 있다. 동 사업은 기아중공업이 국내최초로 착륙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외국의 우수 항공기 제조회사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F-5 E/F STRUT HOUSING

'80년 대한항공이 정부의 전투기 국산화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국산화를 이루어 생산한 제공호(F-5 E/F) 착륙장치의 핵심부품인 STRUT HOUSING을 기아중공업이 자체 개발하여 장착 및 운용 시험을 거쳐 현대 납품하고 있다.

기아중공업은 동 사업에 소요되

는 소재를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고난도의 기계가공과 특수공정을 성공리에 수행해냄으로써 향후 항공기사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 UH-60P(BLACK HAWK) 착륙장치

정부 중형헬기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시콜스키사와 UH-60P헬기의 착륙장치를 국산화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소재를 도입하여 가공, 특수공정, 조립 및 시험을 거쳐 헬기의 최종조립업체인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사업이다. '92년 대한항공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약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친 끝에 국산화에 성공, 현재 양산품 생산을 진행중에 있다.

동 사업은 최신에 중형헬기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착륙장치 제조공정을 미국 원제작사의 지원과 기아중공업이 많은 설비투자과 정예 기술진을 집중 투입하여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동 사업에서 기아중공업은 고강도 소재(300 STEEL)의 초정밀 가공기술과 열처리 변형방지기술, 고강동 알루미늄 합금재의 박막가공기술 등 20여가지의 고난도 기술개발 및 습득을 이루어 향후 후속사업의 수행시 소요될 기술에 많은 경험과 기술축적이 이루어졌다.



고등훈련기 사업의 핵심부품인 완충기를 독자설계, 생산 및 품질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는 실용개발 단계로서 선행개발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양산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중에 있다.

■ 고등훈련기(KTX-2) 착륙장치

공군의 초등훈련기사업과 연계해서 정부타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고등훈련기 사업에 기아중공업은 착륙장치를 국산화하여 공급코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고등훈련기 선행개발단계로 KTX-2 MOCK-UP CLASS III급인 AJTS 착륙장치와 TEST RIG를 이미 국산화 개발한바 있으며 특히 이 사업에 있어 기아중공업은 체계개발시 착륙장치의 핵심부품인 SHOCK STRUT를 설계부터 품질인증까지 국산화 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조립국산화까지 수행하여 양산에 대비코자 한다.

■ 중형항공기 착륙장치

정부와 국내 항공기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한국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 기아중공업도 참여하

■ KF-16 착륙장치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되어 '91년 삼성항공과 물품공급계약을 맺은후 기아중공업은 국산화 목표를 세우고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아의 기술진을 총 투입하여 미국 원제작사의 기술지원과 해외기술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0여종의 생산치공구에 대한 자체설계 및 제작과 항공업무 전반에 대한 200여종의 각종업무절차를 제정 운용하였으며 항공부품 전용공장을 증축하고 사업착수 5년 동안 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끝에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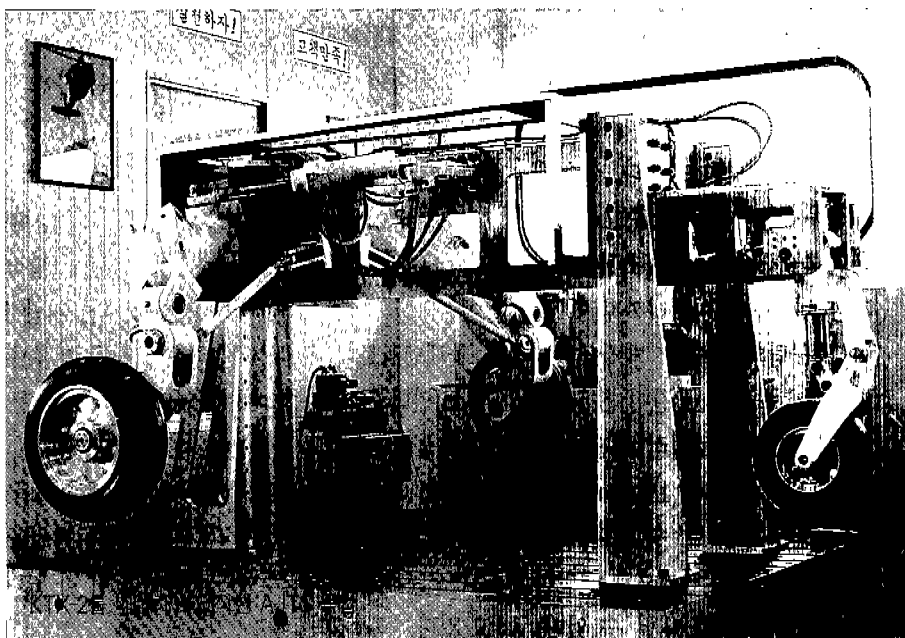
이로인해 기아중공업의 항공제조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가

져왔으며 특히 기술자료의 완벽한 관리방법 개발과 기술변경처리, 몰자심의기술 등 복잡한 관련기술의 벽을 극복하고 업무를 표준화 시켰으며 국산화를 완료하고 기술축적을 이루었다. 독자설계 능력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 기본훈련기(KTX-1) 착륙장치

공군 조종사 훈련기사업으로 진행중인 기본훈련기의 착륙장치를 독자설계, 생산 및 품질인증 시험을 거쳐 최종 조립업체인 대우중공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선행시제기 개발을 통해 착륙장치 설계능력을 확보한 커다란 성과를 올렸으며 이를 토대로

여 착륙장치 설계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형항공기의 외국 사업파트너가 바뀌는 등 전체적인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착륙장치의 본격 설계개발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착륙장치 제작업체와도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추가자료를 취합, 활용중에 있다.



착륙장치 독자 설계/개발능력 확보

이로써 기아중공업은 최첨단 기술분야인 항공기 착륙장치에 있어서 기본훈련기 착륙장치 설계능력 확보, 고등훈련기개발 선행단계의 착륙장치와 개발인증장치의 설계·개발을 토대로 소형 착륙장치 즉 군용기 분야의 설계능력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대형 착륙장치인 민항기분야 설계·개발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민항기 착륙장치 공급자로서 역할과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기아중공업은 이를 토대로 에어버스사와 착륙장치 부품 최종 수주를 진행중이며 최근 미국 보잉사로부터 착륙장치 공급제의를 받

고 구체적인 가격을 협상중이다. 또한 국내의 항공기 운항업체와 협력하여 현재 운항중인 항공기들의 창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착륙장치 전문업체인 프랑스의 메시어 도티(Messier-Dowty)사 및 미국의 메나스코(Menasco)사로부터 민항기 착륙장치 부품을 수주받아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KF-16 전투기 착륙장치 개발성공을 계기로 착륙장치 뿐 아니라 헬기 트랜스미션, 허브, 보조동력장치 등 항공기의 핵심부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대지 유도탄 추진기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의 무궁화위성 발사체 분야에 참여키위해 해외업체와 협상중에 있다.

한편, 국내 항공기산업 전문업체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AI(R)사와의 국제공동개발사업이 기체부문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착륙장치부문의 참여를 위해 메시어 도티사로부터 AI(R) JET 사업중 착륙장치부문에서 동등자격으로 공동개발을 제안받아 현재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로써 기아중공업은 '76년 방위산업체로 출발하여 20년의 노력끝에 방위산업부나인 각종화포, 유도탄 추진기관 및 항공기 착륙장치 등을 생산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방산업체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다.